

일연 원효 설총의 일 담은 공원 문열다

경산시, 총비용 513억 투입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개장

원효 스님과 일연 스님, 그리고 설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역사문화공원이 탄생했다.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최근 남산 일대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개장했다.



총 26만 2천㎡ 부지에 조성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총 사업비 513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09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2013년 6월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공원 내 삼성현역사문화관 콘텐츠 조성사업을 3월에 끝마쳤다.

삼성현역사문화관과 국궁체험장, 둘레길, 야외공연장, 바닥분수대, 어린이놀이터, 다목적운동시설 등을 갖췄다.

주요시설로는 삼성현콘텐츠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삼성현역사문화관', 전통 국궁 체험장인 '국궁장', 이야기기가 있는 '둘레길', 야외공연장, 바닥분수대, 어린이놀이

터, 다목적운동시설, 피크닉장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삼성현역사문화관은 국내의 30여 곳에 흩어진 삼성현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체험공간이다. 지상 1층에는 <삼국유사>의 원효 전기를 세간 전통서각, 체험공간인 온가족실,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지상 2층은 원효실, 설총·일연실, 삼성현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아카이

브실로 구성되어 있다. 경산시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개장을 시작으로 공원 인근에 '동의 참누리사업' 등 시민을 위한 문화·교양 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신문화의 공간이자 친근하고 쾌적한 휴양공간, 경산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원효·일연 스님과 설총에 관련된 자료를 콘텐츠화한 경산 삼성현역사문화공원(사진 왼쪽)과 개장행사 모습(사진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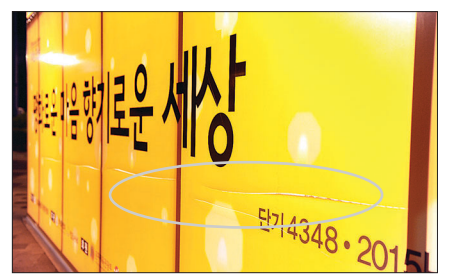
문화관광의 명소로 만들겠다"며 "역사 속 불교 선지식들의 자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장식에는 최영조 경산시장과 이천수 경산시의회 의장, 이두환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일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봉축탑 기단부분 인위적 훼손 '충격'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한 봉축탑의 훼손됐다. 지난 5월 20일 저녁 9시경 광주불교연합회 측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 세워진 봉축탑의 기단부분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관할경찰서에 신고했다.



날카로운 칼로 훼손된 탑의 모습(원안)

이번에 훼손된 봉축탑은 화엄사4사자3층석탑을 모형을 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전체 4면으로된 기단부분 중 2면에 걸쳐 날카로운 면도칼로 14m가 찢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저녁에는 1m 크기로 훼손됐으나 훼손 정도가 경미해 간단한 처리만이 진행될 바 있다.

한편, 광주봉축탑은 5월 27일까지 불을 밝힌다. 이번 설치된 봉축탑은 서울과 수원에 설치된 20m크기의 초대형 탑이다.

지난해에는 전주지역에서 거리연등이 훼손돼 논란이 인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참 나 찾아가는 구도여행으로 초대"

6월 1일~8월 28일, 하안거 재가 안거 수행 결사 봉행

반결계 프로그램 진행, 수행점검 재가자 수행 프로그램 대중화 목표

부산 재가자들의 수행 정진을 위한 하안거 결사가 봉행된다.

(사)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 이하 조계종연합회)는 5월 20일 부산 송정 대원사 쿠루다에서 '하안거 재가 안거'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조계종 연합회 사무총장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은 "동안거를 처음 시작했던 지난해에는 흥보가 미비해 조계종연합회에 소속된 사찰이 대부분이었다"며 "부산 외에 타 지역에서도 신청이 들어오

고 있으니 잘 협력해 수행풍토가 뿌리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올해 하안거 기간은 6월 1일~8월 28일 90일 간 진행되며 입제는 5월 30일 오후 2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입제식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조계종연합회에서 발간한 '재가안거 수행록'을 함께 살피고 수행 교육 안내를 위한 설명회가 실시되며 안거 기간 동안 진행할 수행법 및 점검 방법 등을 확인한다. 재가자 수행 프로그램 안내 후 정식 입제식은 오후 3시이며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의 법문이 이어진다.

또한 조계종연합회는 점검하는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 사찰에서 진행되는 포살 법회뿐 아니라 반결계 시간도 갖는다. 반결계 시간은 참가하는 모든 불자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수행담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다.

2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안거 재가 안거'의 접수기간은 5월 29일까지며 재가안거 수행결사 운영 사찰 중무소 및 조계종 부산연합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부산 생명나눔실천, 제9회 작은 음악회 개최

환우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6월 9일 오후 7시 부산 동의의료원에서 '제9회 환자 패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차 나누기 및 사랑의 떡 나누기와 함께 재활원에서 활동하는 성우원 합주부 연주, 천사가수 설라경, 키다리 배예로 열락, 밴드 바나나우유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하성미 기자

"일심으로 정토 구현 앞장 서자"

대한불교 원효종 원효 스님 1329주기 추모대재 개최



대한불교원효종이 5월 16일 개최한 추모대재에는 7백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조인 원효 스님의 1329주기 추모대재가 5월 16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대재에는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을 비롯해 원로원장 창해 스님, 자문위원장 금부 스님 총무원장 우석 스님과 원로위원 혜조 스님 등 7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원효 스님의 사상은 인간은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일심은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거이며, 일심이 구현한 세계가 바로 정토이다. 원효 스님의 사상과 무애정신을 되새겨 보자"고 말했다.

원로원장 창해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원효 스님이 염원한 귀일심원사상은 인

류에게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을 가르쳐준 등불"이라며 "인류 평화가 성취되길 간절히 발원하며 불교정토가 이룩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의 법에 이어 규정원장 일륜 스님은 원효 스님 행장을 읊으며 "스님의 삶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가슴 속에 깊게 남아 있다. 지역감정으로 얼룩진 상처 반부격차에서 오는 온갖 갈등, 이 모든 것들을 치유 할 수 있는 화쟁 사상의 큰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추모대재에 이어 종단에 공이 많은 스님과 신도들에게 공로상 등을 수여하는 종도대회도 진행됐다.

경주=하성미 기자

완주 송광사, 삼세불 사면법당 개당법회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삼세불 사면법당을 개당했다. 완주 송광사는 5월 20일 기존 대웅전 편액 외 보광명전, 무량수전, 유리관전 3개의 편액과 20편의 주련 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편액 주련불사 회향법회와 삼세불 사면법당 개당법회를 봉행했다.



도영 스님은 "불자여러분들이 송광사의 주인이 되어 삼세불의 편액과 주련에 새겨진 부처님의 금구를 마음에 새겨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지성 스님, 보현사 회주 자광 스님, 팔달사 회주 해광 스님, 화곡원 원혜 스님 등 종단 원로스님들과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前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흥천사, 청소년 백일장 대회

군산 흥천사(회주 지환)는 5월 9일 봉축 청소년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 열리고 있는 흥천사 청소년 백일장 대회는 운문부와 산문부로 나뉘어 군산지역 20여개 학교의 300여 중고등학생이 실력을 겨뤘다.



사 법당에서 열린다.

이날 고등부 장원에는 이진희(전북외고 3), 중등부 장원에는 이지윤(군산중 3) 학생이 당선됐다. 이밖에 입상한 학생들에게 총 5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시상식은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25일 흥천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내소사 지장암, 솔바람 음악회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산사 음악회가 부안 내소사 지장암에서 열렸다. 부안 내소사 지장암(감원 일지)은 5월 9일 지장암에서 한국식 오카리나 제작자이자 연주자인 김준모 씨와 피아니스트 이지우 씨를 초청, '제10회 숲속의 소리 힐링 - 솔바람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준모 씨는 자신의 3집 음반 '그리운 엄

마 보고픈 엄마'의 곡들을 오카리나 선율로 연주해 참석한 300여 명 대중으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일지 스님은 "오카리나의 아름다운 선율이 현대인들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내년에도 개최해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올림 고당리 473-2

한마음 한걸음으로 109년, 우리나라 동국대학교



